

2026년 9월 8일

Hana FX Daily Letter

더 낮아질까, 지지될까?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엔화 강세가 견인한 약달러 흐름 속 하방 압력

daily range 예상: 1,340~1,350원

■ 미국 금융시장이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BOJ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 엔화 절상 기대가 부각되며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고 있음. 이는 달러/원 환율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다만, 국민연금의 환헤지 중단 가능성에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축소될 수 있는 점은 낙폭을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됨. 아울러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점 역시 시장에 부담을 더하는 부분임. 이에 따라 금일 환율은 1,340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 7일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대비 3.4원 내린 1,346.7원 마감 장 초반, 미 비농업 고용 서프라이즈에도 달러 강세 제한된 가운데, 국내 증시 외인 자금 유입과 수급상 달러 매도 우위로 1,330원대 중반까지 하락. 이후 국민연금 환헤지 중단 소식에 반등하면서 1,340.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미 금융시장 휴장 속 수급에 따라 등락하다 1,340원대 중반에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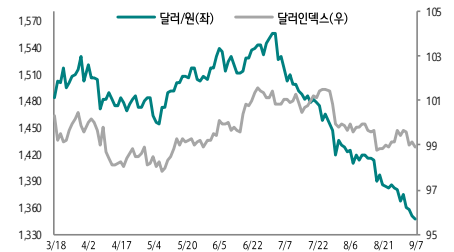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갈등이 부각되고 있으나, BOJ 금리인상 기대 등 엔화 강세 흐름이 이어진 영향으로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으며 98대로 하락
- (유로-달러) 독일의 7월 산업생산이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며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ECB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소폭 강세를 보임
- (달러-엔) 미국과 일본 당국이 엔화 절상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커진 가운데, 엔화 강세가 심화되면서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로 하락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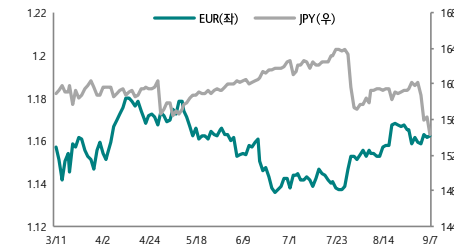
■ 최근 달러/원 환율이 장중 1,330원대까지 하락하며 완전한 엔화 강세 흐름이 부각되었음. 그간의 추이를 돌아보면, 7월 들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자금과 반도체 수출 대금이 대거 유입되며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이 환율 하락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한은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 속에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추가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엔화 강세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흐름의 기저에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선진국 중 최상위권 성장률이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이 자리잡고 있음.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재정건전성 이슈가 부각, 미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향후 우리 경제의 경상 흑자 기조 등 우호적 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환율 하단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중동 전쟁 등 대외 리스크는 물론, 국민연금의 환헤지 중단 가능성 등 환율 하단을 지지할 요인도 상존해 있음. 3분기 들어 이어진 환율 하락세는 고물가로 인한 국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하락 속도가 매우 가팔랐던 만큼, 이제는 1,300원대 환율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저울질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47.8	1,349.5	1,334.7	1,344.9

주요 통화 추이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623	154.37	6.7093
전일대비	+0.0009	-1.86	+0.0014
재정환율	1,565.55	869.68	200.75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08:50	일본 2분기 GDP성장률(QoQ)	0.4%	0.3%
12:00	중국 8월 수출(YoY)	26.0%	23.9%
15:00	독일 7월 수출(MoM)	0.3%	0.9%

한국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